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이익추정치 상향 등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30 종목을 선별하여 구성된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투자전략을 사용

- 이러한 투자전략을 통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인덱스를 충실히 추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덱스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83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주식편입비: 60% 이상 (단,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3년 12월 02일)

- 클래스 A : 2011년 03월 21일
- 클래스 A-W : 2008년 04월 21일
- 클래스 C : 2008년 05월 02일
- 클래스 C5 : 2012년 09월 18일

**벤치마크**

뉴블루칩30지수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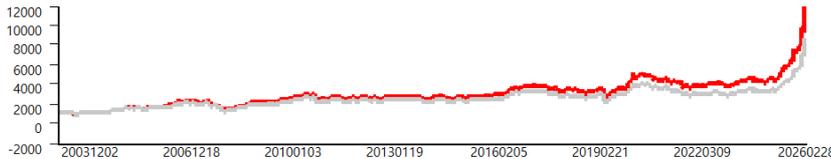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9.68%	64.93%	100.53%	165.61%	180.32%	207.57%	148.47%	1,067.85%
클래스 A	19.61%	64.52%	99.40%	162.44%	173.29%	195.96%	132.76%	248.54%
클래스 A-W	19.66%	64.83%	100.25%	164.82%	178.56%	204.65%	144.47%	374.70%
클래스 C	19.68%	-	-	-	-	-	-	35.87%
클래스 C5	19.61%	64.52%	99.40%	162.44%	173.30%	195.96%	132.76%	268.26%
벤치마크	19.71%	64.09%	98.58%	160.20%	167.51%	190.24%	124.11%	749.6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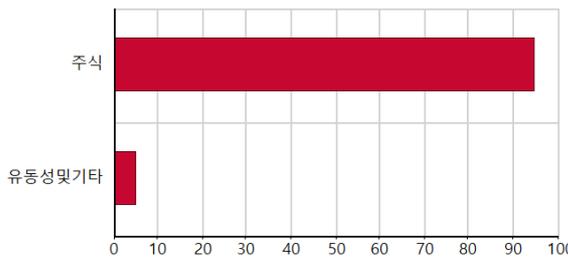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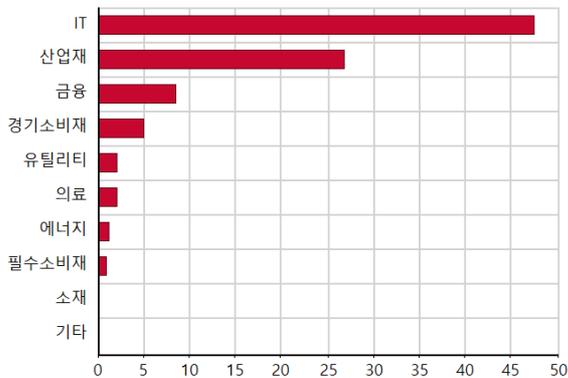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4.9
2	유동성및기타	5.1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47.6
2	산업재	27.0
3	금융	8.5
4	경기소비재	5.0
5	유틸리티	2.2
6	의료	2.1
7	에너지	1.3
8	필수소비재	1.1
9	소재	0.1
10	기타	0.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2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6.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4.3
SK스퀘어	금융	3.9
미래에셋증권	증권	2.9
삼성전기	전기.전자	2.7

종목명	업종명	비중(%)
한화오션	운송장비.부품	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5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2.5
LS ELECTRIC	전기.전자	2.3
삼성물산	유통	2.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33% (판매 1%)
- 클래스 A-W : 총 연 0.33% (판매 0%)
- 클래스 C : 총 연 1.83% (판매 1.5%)
- 클래스 C5 : 총 연 1.33%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2825%, 신탁 0.03%, 사무관리0.0175%

####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W: 납입금액의 0.17%
- 클래스 C, C5: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2월 KOSPI는 전월 대비 19.52% 상승한 6,244.13pt, KOSDAQ은 3.77% 상승한 1,192.78pt로 마감했습니다. 1월 중 사상 처음으로 5,000pt선을 돌파했던 KOSPI 지수는 2월에도 랠리를 지속하며 6,000pt를 돌파했습니다. 연휴 전까지 숨 고르기를 보인 지수는 연휴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레벨업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되면서 지수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월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시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한 증권, 로봇 산업으로의 모멘텀이 반영된 자동차, 실적 추정치가 지속 상향된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수를 단기간에 아웃퍼폼 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던 미디어와 엔터 투어, 일부 선주들의 중국 조선사로의 LNG선 발주로 인해 선가 상승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 조선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4.50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상승한 6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15.6조원), 개인(3.4조원)이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19.9조원)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3월 국내 시장은 1, 2월의 강한 상승세 이후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고, 미국 증시가 관세 노이즈와 AI 기업 불안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갈등은 1, 2월 가파른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갈등 본격화 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단기간에 깊은 지수의 조정이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를 원치 않음을 감안할 때 미국-이란 갈등은 초기 양측의 강한 공방 이후 해결책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의 지수 상승은 실적 상승에 기인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수 조정 시 저점 매수 수급이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할 것입니다. 현재 KOSPI 지수가 반도체 중심의 강한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입니다. 반등 시 주도주 중심의 강세를 예상합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이익 모멘텀, 낙폭과대, 절대 저평가 팩터 중심의 접근 예정입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크로 변수 예측(환율, 유가, 금리)을 통한 선제적 트레이딩 전략도 지속 수행 예정이고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선제적 포지션 구축도 지속 예정입니다. 보호예수 해제, 기업분할, 유상증자 등 증가하는 기업 이벤트에 대해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BM 복제율은 당분간 높게 유지할 계획이고, 차익거래와 지수 편입, IPO 참여, 기업 이벤트 트레이딩 또한 지속적으로 구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